

**의회 대구광역시의회 보도자료**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

제공일자	2024. 4. 29. (월)	
경제환경전문위원	김재현	803-5023
경제환경행정지원팀장	김나현	803-5127
담당자	이찬영	803-5184

##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현장 점검

- 29일(월), ‘금호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 현장 찾아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 논의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이태손)가 4월 29일(월), 민선 8기 핵심 공약사업인 ‘금호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지를 찾아 경관보행교 조성지 등 주요 현장을 점검했다.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은 금호강과 낙동강이 합류하는 지점인 디아크를 중심으로 주변의 달성습지, 대명유수지 등 주요 생태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일대를 관광 명소화하고자 대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현장을 찾은 위원들은 사업의 핵심인 경관보행교 설치 예정지에서 사업의 추진 현황과 계획을 보고 받고, 리모델링이 예정된 디아크 문화관 내부를 둘러본 뒤, 대구시 관계자들과 사업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보행교는 구조적인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미관상으로도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려한 디자인을 고민하여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20여 년간 260억 원을 들여 어렵게 복원한 달성습지의 생태 훼손에 대해 환경단체의 우려가 있는데,

이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태손 경제환경위원장(달서구4)은 “보행교가 사업의 핵심이지만, 주변 달성습지, 화원관광지, 대명유수지 등 주변 관광자원 연계를 통한 관광 활성화가 이 사업의 성과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의회와 같이 논의하여 외부 관광객들에게도 매력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은 총사업비 300억 원이 투입되며 국가와 대구시가 절반씩 부담하여 추진하고 있다. 디아크 문화관에서 금호강을 가로지르는 428m 길이의 경관보행교를 설치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며, 그 밖에 문화광장, 갈대원 조성 등 조경시설의 설치도 계획하고 있다. 오는 5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붙임: 현장방문 사진(별첨)